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한국 프로야구 스타들 한자리에 17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한국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앞서 동·서군 올스타와 감독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베어벡호 "바늘 구멍 뚫고 8강 가자"

■ 한국-인도네시아 오늘 오후 7시20분 D조 최종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2007 아시안컵축구 조별리그 탈락의 위기에 선 축구대표팀이 18일(한국시간) 오후 7시20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글로라 붕카르노 경기장에서 홈팀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D조 최종전을 치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2위의 한국(1무1패·승점1)은 인도네시아(FIFA랭킹 143위·1승1패·승점3)와 역대전적에서 32승4무2패로 앞서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마지막으로 패했던 것도 32년 전일 만큼 일방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아시안컵에서 '아시아의 맹주'를 외치던 태극전사들은 번번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선제골을 지키지 못해 조별탈락의 벼랑 끝에 섰고, 뛰어난 체력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압박에 성공한 인도네시아는 사상 첫 8강 진출의 꿈을 꾸고 있다.

베어벡호는 자력 8강 진출이 어려워진 만큼 인도네시아전에서 대량 득점으로 승리한다는 전제 하에 사우디아라비아(1승1무·승점4)-바레인(1승1패·승점3)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물론 사우디-바레인전이 무승부로 끝나면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된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사우디와 바레인이 비긴다고 해도 한국과 비기면 '승자승 우선원칙'에 따라 바레인을 누르고 조 2위로 8강 진출이 가능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다.

이에 따라 베어벡호는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운 확률의 8강행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인도네시아를 반드시 잡고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각오 뿐이다.

인도네시아전을 맞는 베어벡 감독의 고민은 좀처럼 득점포가 터지지 않고 있는 전방 스트라이커의 선정이다.

1,2차전에서 조재진(시미즈), 이동국(미들즈브러), 우성용(울산)을 모두 가동해봤지만 골 결정력 부족으로 무득점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플레이가 뛰어나고 슛 감각이 올라있는 조재진이 선발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염기훈(전북)과 이천수(울산)가 좌우 날개로 먼저 배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천수 대신 1대1 돌파에 능한 최성국(울산)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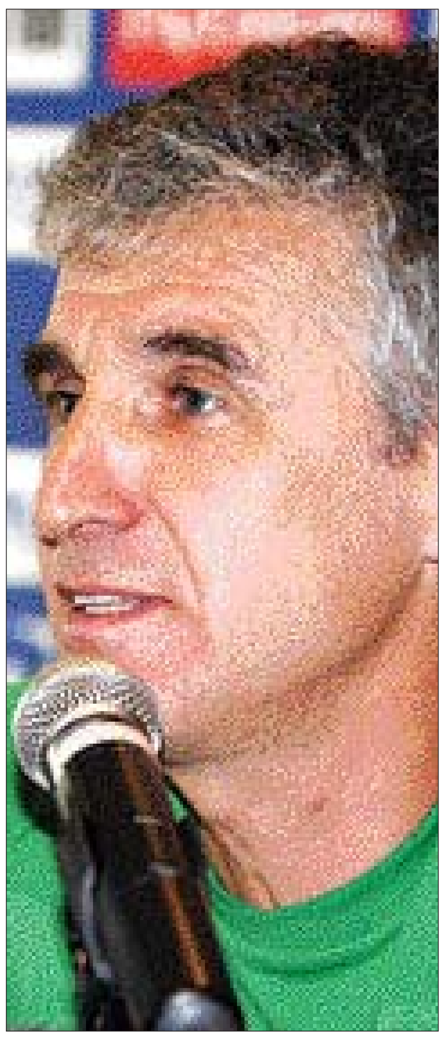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바레인전에서 적극적인 공격력을 선보인 김두현(성남)이 바레인전 역전골의 빌미가 된 백패스로 위축된 김정우(나고야)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김상식-손대호(이상 성남)의 '더블 볼란테'가 가동될 전망이고 중앙 수비에는 김진규-강민수(이상 전남)가 나선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포백(4-back)의 좌우 윙백이다. 인도네시아의 빠른 기동력을 잡기 위해선 발 빠르고 투쟁심이 뛰어난 김치우(전남)-오범석(포항)조가 베어벡 감독의 선택을 받을 공산이 크다.

골키퍼는 주장 이운재(수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한국 베어벡 감독



印尼 콜레프 감독

■ 알고 보는 재미

'7년 前 기적' 또 이루어지나

최악땐 베어벡 고별전 될수도

47년 만에 2007 아시안컵축구 정상도전에 나선 베어벡호가 최악의 부진을 거듭하면서 조별리그 통과 조차 '자카르타의 기적'을 꿈꿔야 하는 힘겨운 처지에 놓였다.

18일(한국시간·오후 7시20분) 오후 대회 조별리그 D조 최종전을 앞둔 베어벡호는 8강 진출의 다양한 '경우의 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동개최국 인도네시아를 큰 점수 차로 꺾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감독직'이 걸려있는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서는 핌 베어벡 감독이 어떤 공격전술로 '바늘구멍'같은 8강 진출의 길을 헤쳐나갈 지 관심거리다.

▲'진퇴양난' 베어벡, 마지막 전술카드= 베어벡 감독은 지난달 6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아시안컵 4강에 들지 못한다면 그동안 한국에서 일했던 부분에 대해 되돌아 봐야 한다"며 "내 자신의 실수가 많았다고 생각되면 축구협회에 다른 지도자를 찾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암시했다. 이후 아시안컵 본선에 나선 베어벡호는 조별리그 탈락의 위기에 놓였고, 베어벡 감독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독직 사퇴'의 함정에 빠질 위기에 몰렸다.

이에 따라 기적 같은 8강 진출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베어벡 감독은 '롱패스에 의한 뒷공간 활용'의 구태의연한 전술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패스를 통한 공간활용으로 인도네시아전 대량 득점에 나서야한다.

▲7년 전 '기적의 드라마'는 재연될 수 있나= 한국 축구에는 유달리 '기적과 쇼크'의 역사가 많다. 기적 시리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93년 미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거둔 '도하의 기적'이었다. 하지만 아시안컵에서도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2000년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1차전에서 중국과 비긴 뒤 2차전에서 쿠웨이트에 0-1로 패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의 위기에 빠졌다.

3차전 상대는 인도네시아. 한국은 이동국(미들즈브러)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3-0으로 승리, 가까스로 '와일드 카드'를 얻어 8강에 오르는 기적을 맛봤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고 베어벡호는 그 때와 '판박이'처럼 똑같은 상황에 처했고, 공교롭게도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로 또 한번 인도네시아를 만났다.

▲조재진-이동국, 원톱 자존심을 살려라= 공격수에게 골을 못 넣는 것 만큼 치욕적인 일도 없다. 베어벡 감독이 매번 '뛰어난 공격수 3인방'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조재진(26·시미즈), 이동국(28·미들즈브러), 우성용(34·울산)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2경기를 치르면서 거둔 성적표는 '노골'이다.

더구나 이동국은 2000년 아시안컵 득점왕을 차지했고, 베어벡호 유일의 프리미어리거 공격수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이에 부흥하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조재진과 이동국이 과연 마지막 아시안컵 무대가 될 수도 있는 인도네시아전에서 화끈한 공격포를 가동, 한국의 기적같은 8강행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지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일본·호주 8강 진출

우승 후보 일본과 호주가 예상대로 8강에 올랐다.

일본은 16일(이하 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미딩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마키 세이치로(2골), 엔도 야스히토, 나카무라 순스케의 연속골로 홈팀 베트남을 4-1로 대파, 2승1무(승점 7)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일본은 스즈키 게이타가 자책골을 헌납해 베트남에 리드를 당했지만 마키가 동점골로 간단히 균형을 맞추고 엔도의 프리킥으로 리드를 잡았다. 일본은 후반 미드필더진의 핵 나카무라와 마키가 골 퍼레이드에 가세해 낙승했다.

베트남은 대패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카타르를 잡아준 덕분에 8강 진출에 성공했다.

1승1무1패가 된 베트남이 2위, UAE가 1승2패로 3위, 카타르는 2무1패로 최하위가 됐다.

정수근 '별중의 별'

동군, 서군에 6-3 승

프로야구 올스타전

정수근(롯데·사진)이 2007년 프로야구 '꿈의 무대'에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역전 2점 홈런을 쏘아 올리며 3년 만에 또 한번 '별중의 별'로 떠올랐다.

정수근은 1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동군(삼성, 롯데, 두산, SK) 좌익수 겸 9번 타자로 선발출장해 결승 투런포 등 4타수 1안타 2타점 활약으로 6-3 승리에 앞장섰다.

올스타 팬 투표에서 뽑혀 베스트 10 멤버로 나온 정수근은 기자단 투표에서 총 67표 중 49표를 얻어 13표에 그친 이대호(롯데)를 제치고 '미스터 올스타'로 뽑혀 상금 1천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정수근의 올스타전 MVP 등극은 5타수 3안타 2타점으로 '별들의 잔치' 주인공이 됐던 2004년 이후 3년 만이다.

롯데 선수로는 프로 원년 김용희 이후 열번째. 김용희와 박정태, 정수근이 두 차례씩 수상했다.

투·타에서 압도한 동군은 2004년 이후 4년 연속 올스타전에서 승리하며 서군(현대, 한화, KIA, LG)과 역대 상대전적에서 20승 11패의 우위를 이어갔다.

역전과 재역전을 벌이는 명승부로 3만석이 가득찬 사직구장이 응원 함성으로 메아리쳤다.

맨유 오늘 입국

20일 FC 서울과 대결

한여름 축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할 최고의 선수들이 한국 땅을 밟는다.

아시아 투어에 나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18일 오후 2시10분 전세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다.

맨유는 17일 일본 J-리그 우승팀 우라와 레즈와 사이타마 월드컵경기장에서 먼저 친선전을 치르고 한국에 들어온다. 국내에서는 20일 오후 8시 상암벌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세뇰 귀네슈 감독의 FC 서울과 맞붙는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맨유 선수들은 한국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다.

입국 당일 기자회견이 잡혀있고 19일에는 맨유 구단 역사서 '맨유 오푸스'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 같은 날 박지성과 맨유 팀 동료 3명은 중구 신당동 청구초등학교에서 일일 사커스쿨을 연다.

맨유는 한국에 이어 마카오와 중국 광저우에서 친선경기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간다.

이번 방한 명단은 25명. 웨인 루니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라이언 긱스, 폴 스콜스, 리오 퍼디낸드, 에드윈 판 데르사르 등 2006-2007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주역들이 거의 빠짐없이 포함됐다.

남미선수권대회인 코파 아메리카 2007에 출전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가브리엘 에인세와 브라질 대표 안데르손, 부상으로 재활 중인 게리 네빌, 올레 군나르 솔샤르 등 몇명만이 맨유의 아시아 축제에 동참하지 못했다.